

詩作을 통해 본 王維 初年の 意識 世界*

朴 三 洙**

<目 次>

I. 머리말	IV. 인생에 대한 感悟와 哀傷
II. 입신 현달에의 立志	V. 고결한 품성과 旨趣에의 志向
III. 불합리한 현실 풍자와 理想 社會 동경	VI. 自然美의 중시와 추구
	VII. 맺음말

I. 머리말

왕유(701~761)는 이백·두보와 같은 시대를 산 盛唐의 대시인으로, 한 때는 “濟世救民한 연후에 훌훌 털고 떠나리니 / 어찌 헛되이 보잘것없는 한 사내로 그치랴?(濟人然後拂衣去, 肯作徒爾一男兒)”(<不遇詠>)라고 목청을 높일 정도로 정치적 포부 또한 원대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여의치 않았고, 일생 동안 비록 李·杜만큼은 아닐지라도 그 역시 일련의 시련과 곡절을 겪으며 정치적으로 득의하지 못하고 결국 亦官亦隱의 고뇌에 찬 삶을 살았다.¹⁾

사실 ‘명경과 급제는 서른 살이면 이미 늙은 것이고, 진사과 급제는 쉰 살에도 아직 젊은 것(三十老明經, 五十少進士)’으로 받아들여지던 당대에

* 이 논문은 2008학년도 울산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울산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국학과 교수
 1) 본고의 왕유 생애 사적에 대한 논술은 현재 전반적으로 통설의 중심에 있는 陳鐵民 교수의 《王維集校注》(北京: 中華書局, 1997.8), 특히 그 부록5 <王維年譜>에 의거하기로 한다.

왕유는 개원 9년 스물한 살 젊은 나이에 당당히 진사에 登科하여²⁾ 벼슬 길에 올랐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같은 해 뜻하지 않은 사건에 연루되어 濟州(지금의 산둥성 茌平縣 서남쪽 일대)로 좌천되면서 냉혹한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진사 급제와 함께 득의의 첫발을 내딛기가 무섭게 좌절을 맛보면서 장차 벼슬길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감하였다. 이후 실제로 그는 비록 죽는 날까지 벼슬자리에 있었으나 시종 남모르는 시름과 고통에 시달려야 하였다.

일찍이 두보가 <解悶>에서 “高人 왕우승은 보이지 않고 / 남전 골짜기엔 온통 한등만 가득하구나(不見高人王右丞, 藍田丘壑漫寒藤)”라고 하였듯이 왕유는 진정 一代의 高士였다. 그는 가정적인 불행에 정치적 실의와 失節이 이어지는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결코 비판하거나 염세하지 않고, 인간의 내면적 생명 가치를 추구하며 고결한 인품과 청아한 詩品을 도야하였다.

한편 왕유의 초년(본고에서는 진사 급제 이전을 이룸)은 비록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는 불행은 있었지만 일생 중 가장 적극 진취적인 태도로 청운의 꿈을 키워간 시기로, 차라리 중·말년에 비해 나름대로는 득의한 날들이었다. 史傳上の 관련 기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소년 왕유의 爲人과 행적을 제대로 탐구하고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다만 아홉 살에 이미 글을 지을 줄 알 정도로 문재가 뛰어났던³⁾ 왕유의 현존 시작 가운데에는 초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이 모두 12수가 보이는 데,⁴⁾ 아쉬운 대로 사전 기록의 부족을 메우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왕유

2) 《舊唐書·王維傳》…“維開元九年進士擢第.”

3) 《新唐書·王維傳》…“九歲知屬辭.”

4) 왕유 詩의 작품별 창작 연대 역시 陳鐵民: 앞의 책의 編年에 따르기로 한다. 왕유의 초년 시작 12수 가운데 應教詩 3수를 제외하면 모두 창작 당시의 나이를 附記한 原注가 달려 있으며 陳교수는 이를 신뢰하는 입장에 있다. 반면 현재 일부 학자들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王輝斌 교수는 <王維詩歌編年考訂>(《運城學院學報》26:1, 2008.2. 18-23쪽)에서 이 원주는 아마 왕유 본인이 아니라 동생 王縉이 달았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劉飛濱 교수(<王維詩題注小議>, 《王維研究》3, 2001.10. 313-319쪽)의

가 초년에 견지한 의식 관념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 같은 의문을 갖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관은 상당 부분 초년에 형성 확립되며(어쩌면 많은 부분이 타고 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후 그의 處身 行事的 성격과 방향성을 결정짓는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왕유의 현존 시작을 통해 그 초년의 의식세계를 분석 탐구함으로써 왕유의 인생관, 처세관의 원천을 이해함과 동시에 그 중·말년의 인생 태도와의 상관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II. 입신 현달에의 立志

왕유는 蒲州(지금의 산서성 永濟縣) 사람으로, 중소 관료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으나 유년에 아버지를 여의고 여러 동생들과 함께 홀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자랐다. 때문에, 천성적으로 부모에 대한 효성과 형제에 대한 우애가 지극했던⁵⁾ 그는 아마도 일찍부터 家計에 대한 고민과 부담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왕유의 청소년기는 玄宗이 則天武后 이후 참혹한 政爭이 이어지던 난국을 평정하고 바야흐로 훗날 ‘開元의 治世’로 불리는 태평성대의 기틀을 다진 시기였다. 일찍이 공자가 이르기를 “천하에 바른 도가 행해져 태평하면 세상에 나아가 벼슬을 한다.(天下有道則見)”(《論語·泰伯》)고 하였듯이 당시의 문사들은 너나없이 유가적 兼濟天下

견해에 의거해 그 신뢰성을 부정하였다. 《舊唐書·王維傳》에 따르면 왕유의 문집은 왕진이 代宗의 명을 받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형 왕유의 작품을 모아 바치면서 처음으로 엮여지게 되었는데, 당시 왕진이 황제의 御覽에 편리하도록 나름의 배려를 하였을 수 있고, 또 이 원주가 다분히 제삼자의 어투를 띠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劉교수의 주장은 분명 일리가 있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왕유의 일생 동안, 특히 초년 내내 가장 가까이에서 거의 함께 생활했던 동생 왕진의 기억과 기록을 과연 선불리 불신 폐기할 수 있을까? 왕유 본인의 기록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현재 확증이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가장 신뢰할 만한 참고 자료가 아닐 수 없다.

5) 《新唐書·王維傳》…“王維……資孝友.”

의 포부를 품고 입신 현달에 적극 진취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야말로 왕유가 스물한 살 때, 과거에 낙방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벼를 송별하며 지은 <送綦毋潛落第還鄉>에서 “지금 같은 태평성대엔 은거하는 이 없이 / 英明한 인재들 모두 조정으로 돌아오니 / 결국 벼슬에 뜻 없는 동산의 은자로 하여금 / 고비 뜯으며 은거할 생각조차 못하게 하였구나(聖代無隱者, 英靈盡來歸, 遂令東山客, 不得顧採薇)”라고 할 정도였다. 8세기 초 이른바 ‘盛唐氣象’이 고조되는 그 같은 분위기에서 왕유라고 예외일 수 없었으며, 게다가 그가 가계에 대한 일정한 책임감까지 느꼈을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훗날 <贈從弟司庫員外綬>에서 “젊은 시절엔 세상사 깊이 알지 못하고 / 온 힘 다해 명리 추구를 흉내 내었거니(少年識事淺, 強學干名利)”라고 素懷를 밝힌 것은 젊은 날 그 역시 입신 현달에 입지하였음을 방증한다 하겠다.

사실 왕유는 어려서부터 불교와 아주 친밀한 환경에서 성장하였다. 어머니 崔氏가 삼십여 년 간 大照禪師를 사사한 독실한 불교도였으니,⁶⁾ 효자로 이름난⁷⁾ 그가 그 훈도와 영향을 상당히 받았음은 불문가지이다. 옛날 남자가 스무 살이 되어 冠禮를 행할 때면 으레 字를 지어 붙였는데, 왕유의 자는 ‘摩詰’로, 곧 이름 ‘維’와의 결합으로 고대 인도의 在家 佛徒 ‘유마힐’ 居士를 떠올리게 하였으니, 당시 왕유의 불교적 취향을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다만 진철민 교수의 고증에 따르면 그가 진실로 불교 사상을 받아들여 신봉하기 시작한 것은 대략 개원 15년(727) 스물일곱 살 때부터인 것으로 판단된다.⁸⁾ 요컨대 상당한 불교적 취향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조류와 가계 부담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었던 초년의 왕유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당시의 많은 문사들과 마찬가지로 유가의 적극 진취적인 사상

6) 王維 <請施莊爲寺表>…“臣亡母故博陵縣君崔氏, 師事大照禪師三十餘歲, 褐衣蔬食, 持戒安禪, 樂住山林, 志求寂靜。”

7) <舊唐書·王維傳>…“(維)事母崔氏以孝聞。”

8) 陳鐵民, <論王維的佛學信仰>, <王維新論>(北京: 北京師範學院出版社, 1990.9.) 136-137쪽 참조.

이 주도적인 자리를 차지하였다.

왕유의 <過秦皇墓> 題下 原注에 “이때 나이는 열다섯(時年十五)”이라고 하였는데, 진시황릉은 지금의 섬서성 臨潼縣 동남쪽 驪山 기슭에 있으니 곧 그가 열다섯 살 때 고향을 떠나 장안으로 가면서 潼關을 거쳐 여산을 지나며 이 시를 지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제하 원주에 ‘창작 당시의 나이가 열일곱 살이었다’(時年十七)고 한 <九月九日憶山東兄弟>는 당시 장안에서 寓居하던 왕유가 중앙절을 맞아 고향의 형제들을 그리며 지은 것이다. 왕유가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 장안으로 간 것은 물론 하루라도 빨리 입신 현달하여 제세구민의 포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보에 다름 아니다.

열여덟 살 때 왕유가 장안에서, 요절한 친구 祖自虛를 애도하여 지은 <哭祖六自虛>⁹⁾를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우리 함께 손잡고 노닐 제	念昔同攜手
그대는 잠시도 고아한 風度를 잃지 않았었다	風期不暫捐
終南山에서는 함께 隱逸 생활을 하였고	南山俱隱逸
낙양 땅에선 郭泰와 李膺처럼 신선인 양하였다	東洛類神仙
그대의 音容이 사라졌음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나니	未省音容間
어찌 이 돌연한 生死의 변화를 감당할 수 있으랴?	那堪生死遷
꽃 피는 시절에는 金谷園에서 마음껏 술을 마셨고	花時金谷飲
달 밝은 밤이면 죽림에서 편안히 잠을 잤도다	月夜竹林眠

여기서 ‘南山’은 중남산으로 지금의 섬서성 남부의 秦嶺 산맥인데 主峰이 장안 남쪽에 있어 흔히 ‘남산’으로 일컬어졌으며, ‘金谷’은 지금의 하남성 낙양 서쪽에 있던 金谷園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왕유가 열여덟 살 이전에 장안에 거주할 때 조자허와 함께 중남산에 은거한 적도 있고, 낙양을 漫遊한 적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현종은 개

9) 題下 原注··“時年十八..”

원 5년 2월부터 同 6년 10월까지 낙양에 머물렀다고 하는데,¹⁰⁾ 왕유가 낙양을 만유한 까닭 역시 입신 현달을 위한 행보의 연장선상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왕유가 일시적이거나 어린 나이에 종남산에 은거한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당대에는 隱逸 기풍이 극성하였다. 벼슬길에 실의하거나 천성적으로 出仕에는 뜻이 없고 오로지 산수 자연을 좋아하여 은거하는 경우 외에도 당시에는 특히 출사의 방편으로 은거하는 풍조가 만연하였으니, 이른바 ‘終南捷徑’이 바로 그것이다. 당대 盧藏用이 진사에 급제한 후에도 벼슬자리에 오르지 못하자 종남산에 은거하면서 청빈하고 고고한 명성을 얻어 마침내 조정에 重用된¹¹⁾ 이래로 은거는 뜻밖의 효력을 발휘하는 ‘登龍術’이자 관직과 名利를 구하는 첩경이 되었다. 그러한 시대에 서둘러 당제국의 정치 문화의 중심인 兩京을 오가며 사회 진출을 꾀하던 왕유가 문득 장안 부근의 종남산에 은거한 것은 분명 ‘종남첩경’을 가며 조정의 관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일거에 발탁 중용되기를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入京 후 왕공 귀족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는가 하면 열아홉 살에는 京兆府試에, 스물한 살에는 진사과에 응시한 것을 보면 그 같은 추측은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종남산이 경성의 교외에 위치한 만큼 벼슬을 구하는 이들이 그곳을 선택해 은거한다면 곧 그들의 인품과 덕망 그리고 재능의 명성이 널리 퍼지면서 곧바로 조정에 전해질 뿐만 아니라 前代 隱士들의 높은 명망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종남산은 은거의 품질을 담보하고 출사의 추구를 가능케 하는 결정체가 되었다. 그러므로 종남산 은거를 선택한 것은 자명한 두 가지 정보, 즉 은자의 用世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時俗에 대한 차별화 의도를 암시하고 있다 할 것이다.’¹²⁾

애초 왕유는 서서히 京城 생활에 적응하며 꿈을 키워갔는데, 약관도 되

10) 《通鑑》 권212 참조.

11) 《新唐書·盧藏用傳》 참조.

12) 黎亮, 〈王維隱逸的心路歷程〉, 《昭通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25 : 3(2003.6), 25쪽.

기 전에 이미 詩文으로 널리 명성을 얻은 데다 음악적 조예까지 뛰어난 데 힘입어 왕공 귀족 등 상류사회의 환대를 받았다. “특히 岐王의 恩遇와 중시를 받았고(尤爲岐王之所眷重)(唐 薛用弱 《集異記》)¹³⁾ “寧王과 薛王도 그를 좋은 스승이자 유익한 친구처럼 대하였다.(寧王薛王待之如師友)”(《舊唐書·王維傳》) 왕유의 스무 살 때 작품으로 추정되는¹⁴⁾ <從岐王過楊氏別業應教>, <從岐王夜讌衛家山池應教>, <敕借岐王九成宮避暑應教>는 당시 그가 확실히 親王(천자의 肉親 중 王에 봉해진 사람으로, 대개 천자의 형제와 아들을 일컫음)이나 諸王(천자가 分封한 諸侯王)과 친밀히 교류하였음을 보여준다.

한편 왕유의 <賦得淸如玉壺冰>은 제하 원주에서 “경조부시의 詩題로 당시 나이는 열아홉(京兆府試, 時年十九)”이라고 하였는데, 《集異記》에서 왕유가 약관 이전에 岐王의 도움으로 공주의 추천을 받아 경조부시에 解頭 급제하였다고 한 것은 바로 이를 두고 이룬 것이다.¹⁵⁾ 왕유는 스물한 살 때 진사에 급제하였는데, 당대 과거 제도상 진사에 급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州, 府의 鄉試를 거친 후 尙書省의 吏部試(나중에는 禮部試로 바뀜)를 통과해야 하였으니, 그는 곧 열아홉 살의 나이로 당시 입신 현달의 등용문이었던 진사 등과를 향한 1단계 목표에 도전 성공한 것이었다.

13) 羅宗陽 《歷代筆記小說選》(南昌: 江西人民出版社, 1984.)에서 재인용. 본고의 《集異記》 인용은 모두 이와 같음.

14) 陳鐵民 <王維年譜>, 《王維集校注》(北京: 中華書局, 1997.8.) 1328쪽 참조.

15) 《集異記》·“王維右丞, 年未弱冠, 文章得名. 性嫻音律, 妙能琵琶, 遊歷諸貴之間, 尤爲岐王之所眷重. ……維方將應舉, 具其事言於岐王, 仍求庇借. ……(岐王與維)同至公主之第. ……岐王因曰: ‘若使京兆今年得此生爲解頭, 誠爲國華矣.’ ……公主則召試官至第, 遣宮婢傳教. 維遂作解頭而一舉等第矣.” 唐代 沈亞之의 《집이기》가 필기소설에 속하는 만큼 왕유가 기왕의 도움으로 공주의 추천을 받았다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왕유가 경조부시에 해두 급제했다는 사실과 당대 과거에 있어 이른바 ‘溫卷’의 실상 및 추천인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 수 있다.

III. 불합리한 현실 풍자와 理想 社會 동경

왕유는 다재다능함에 힘입어 어린 나이에 경성의 상류사회를 드나들며 입신양명을 도모하였다. 당시 유가적 사상 경향이 비교적 강했던 그는 권문귀족 사회의 실상을 직접 목도하면서 그 화려하고 부귀한 생활 속에 감추어진 사회적 모순과 불합리를 통렬히 풍자하고 비판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먼저 열여덟 살 때 낙양 현지에서 소재를 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洛陽女兒行>을 보자.

낙양 여인 건넛집에 사는데	洛陽女兒對門居
빼어난 용모에 열다섯 남짓	纔可顏容十五餘
낭군님은 옥 장식 골레 씌워 총이말을 타고	良人玉勒乘驄馬
시녀는 황금 쟁반에 잉어고기 회쳐 날라 오도다	侍女金盤脍鯉魚
화려한 단청 누각들 온통 서로 마주보고	畫閣朱樓盡相望
붉은 복숭아나무 푸른 버드나무 처마 밑으로 드리워졌거니	紅桃綠柳垂簷向
비단 휘장 둘러 칠향거에 모셔지고	羅帷送上七香車
진귀한 파초선 씌워 구화장으로 맞아들이도다	寶扇迎歸九華帳
호쾌한 지아비는 젊은 청춘에 한껏 부귀하여	狂夫富貴在青春
분방한 의기에 사치·방탕함이 석승보다 심하거니	意氣驕奢劇季倫
벽옥을 귀여워하여 친히 가무 가르치고	自憐碧玉親教舞
아낌없이 산호 가져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다	不惜珊瑚持與人
봄 창가에 날 밝아와 비로소 九微燈을 끌 제	春牕曙滅九微火
燈花 가루 편편이 꽃무늬 창문으로 날아가는데	九微片片飛花璪
희희낙락 놀고 나면 결국엔 악곡 가무 익힐 짬 없고	戲罷曾無理曲時
단장하고선 향 내음 풍기며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이로다	妝成祇是薰香坐
성안에서 알고 지내는 이 모두가 부호요	城中相識盡繁華
밤낮으로 오가는 곳 하나같이 貴戚의 집안이러니	日夜經過趙李家
그 누가 어여빠 여기랴! 저 벽옥 같은 월나라 여인을	誰憐越女顏如玉
빈천하게도 시냇가에서 손수 빨래하고 있나니!	貧賤江頭自浣紗

여기서 ‘낙양 여인’은 건넛집 權貴의 ‘빠어난 용모에 열다섯 남짓’밖에 되지 않는 젊은 총희이다. 왕유는 그녀의 생활상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으니, 물질적 생활환경은 더할 나위 없이 호화롭고 풍족하며 왕래하는 이들도 하나같이 부호요 귀척이다. 뿐만 아니라 젊은 낭군의 사치 방탕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나마 ‘백옥을 귀여워하여 친히 가무를 가르치’지만 결코 진실한 애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여인은 왕왕 ‘희희 낙락 놓고 가면 결국엔 악곡 가무 익힐 째 없고 / 단장하고선 향 내음 풍기며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이다.’ ‘낙양 여인’의 화려한 물질생활 이면에 가려진 정신적 공허함과 무료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처럼 왕유는 당시 권문귀족의 사치 방탕하고 황음 부패함을 신랄히 풍자하는 한편 상류사회 여인들의 外華內空의 불행한 삶을 동정하였다. 작품의 말미에서는 다시 西施의 고사를 써서 진일보한 寓意를 덧붙였다. 사실 이제껏 동정한 ‘낙양 여인’의 신세나 처지도 어느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빈천한 ‘저 백옥 같은 월나라 여인’에 비하면 그래도 나은 편이라는 것이다. 청대 沈德潛이 이 “結尾의 뜻은 군자의 불우를 비유한 것(結意況君子不遇也)”(《唐詩別裁》)¹⁶⁾이라고 하였듯이 貴賤間의 괴리와 모순이 만연한 불합리한 사회에 대한 시인의 이 같은 폭로와 비판은 寒門 才士들의 懷才不遇함에 대한 동정과 개탄에 다름 아니다. 한 마디로 今人 程千帆이 말한 대로 “이 시는 당시 호문 귀족의 호화 사치한 생활을 풍자함과 동시에 美色으로 賢才를 은근히 비유해 출신만 중시하고 현재는 가벼이 여기는 당시의 사회 풍조에 대해 불평불만을 토로하였다.(這篇詩諷刺了當時貴族豪家的奢華生活, 同時也以美色暗喻賢才, 對當時社會中只重出身不重賢才的風氣, 發出了不平之鳴)”(《古詩今選》)¹⁷⁾

다시 왕유의 유명한 詠史詩이자 풍자시인 <息夫人>을 보자.

지금 특별한 사랑 받는다 하여

莫以今時寵

16) 진철민, 《王維集校注》, 7쪽에서 재인용.

17) 楊文生, 《王維詩集箋注》(成都: 四川人民出版社, 2003.9.) 61쪽에서 재인용.

지난날의 은덕 잊을 수 없거니
꽃을 보고도 두 눈 가득 눈물 흘리며
초왕과는 말 한 마디 아니 하였다네

能忘舊日恩
看花滿眼淚
不共楚王言

이는 시인이 경조부시에 급제한 이듬해 장안에서 동생 왕진과 함께 諸王의 저택을 드나들던 때의 작품이다. ‘식부인’은 춘추시대 息國 군주의 부인으로, 고국을 멸망시킨 楚文王에게 강제로 끌려가 살며 무인으로 항거한 비운의 여인이다. 唐代 孟棻의 《本事詩》에 따르면 이 시는 식부인의 불행한 신세를 빌려 현종의 형인 寧王 李憲의 황음무도함을 풍자한 것이다. 본시 황음하기로 이름난 영왕이 이웃집 부침개 장수의 아리따운 아내를 강제로 빼앗아 와 살았는데, 한 해가 지나 영왕이 부침개 장수를 불러 두 사람을 서로 만나게 하였더니, 여인은 북받치는 슬픔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이에 영왕이 당시 그 광경에 감동해 마지않던 좌중의 여러 문사들에게 시를 지어보라고 하자 왕유가 주저 없이 이 시를 지어낸 것이다. 갓 스무 살의 젊은이가 이렇듯 절묘한 비유로 王侯의 不義를 과감히 諷諫하다니, 오히려 만좌한 碩學들이 영왕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숨을 죽였을 것이다. 그러나 못사람의 우려와는 달리 영왕은 노하기는커녕 깊이 有感하여 즉각 여인을 부침개 장수에게 돌려주었다고 한다. 청년 왕유의 정의감이 어느 정도였는지, 왕유와 영왕의 교분이 얼마나 두터웠는지를 짐작하기에 모자람이 없다.

이밖에 왕유가 열아홉 살 때 장안에서 지은 것으로 알려진 <李陵詠>은 고대의 모순된 정치 현실을 반영한 작품으로, 비탄과 동정의 필치로 漢代 명장 이릉의 불행한 신세와 고통스런 심정을 묘사하였다. 이릉은 명장 李廣의 손자로 武帝가 驕都尉로 중용하였다. 그는 天漢 2년(기원전 99) 흉노 정벌 때 적군의 힘을 분산시키는 임무를 띠고 5천의 병사를 이끌고 적진 깊숙이 들어갔다가 흉노의 주력 8만 대군에게 포위되고 말았다. 사투를 벌이며 적에게 막대한 타격을 입혔으나 많은 병사를 잃고 식량까지 떨어진 데다 원병마저 오지 않는 상황이라 이릉은 하는 수 없이 흉노에

투항하였다. 소식을 전해들은 조정 衆臣들은 하나같이 그를 나무랐고, 무제는 진노하여 이릉의 구순 노모를 비롯한 일가 300여 명을 몰살하였다. 이릉의 집안은 三代가 모두 漢 왕조의 장수로서 나라를 위해 혁혁한 전공을 세웠고, 또 평소 그의 충군애국의 충정은 실로 남다른 것이었다. 때문에 그의 투항은 당시 그를 변호하다 宮刑에 처해진 司馬遷의 추측처럼 분명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훗날을 도모하고자 함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여 무제의 寡恩薄德이 너무나 아쉬울 따름이다. 한편 흉노 單于는 이릉을 공주와 결혼시켜 右校王에 봉해 예우하였고, 이릉은 漢昭帝 元平 원년(기원전 74) 흉노 땅에서 병사하였다.¹⁸⁾

왕유는 작품에서 먼저 三代將門의 자손인 이릉의 뛰어난 전략과 용맹무쌍함을 찬미한 후 “선우의 성채 깊숙이 쳐들어갔다(深入單于壘)” “우리 대군의 지원을 받지 못해 / 흉노의 장막에 동거하는 치욕을 당한(既失大軍援, 遂嬰穹廬恥)” 데 대해 몹시 가슴아파하였다. 이어서 이르기를,

어려서부터 줄곧 漢 왕조의 은혜를 입었을진대	少小蒙漢恩
어찌 거듭 이는 치욕의 고통을 감당할 수 있으랴	何堪坐思此
언젠가는 충심으로 立功報國코자 하였기에	深衷欲有報
몸을 던져 싸우다가도 가벼이 죽을 수가 없었나니	投軀未能死
목을 길게 빼고 還國하는 蘇武께 바랐나니	引領望子卿
그대 아니면 어느 누가 이 억울함을 풀어 주리요?	非君誰相理

그야말로 明代 顧可久가 “능히 이릉이 마음속으로 생각한 일을 말하였다.(能道陵意中事)”¹⁹⁾고 한 대로 죽음으로써 절조를 지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요 오히려 후일을 도모하여 기필코 치욕을 씻고 입공 보국하겠다는 이릉의 심중을 깊이 헤아리면서 과은박덕한 무제에게 울분을 토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왕유가 훗날 안록산의 난 때 치욕을 감수하며 조정이 양

18) 《史記·李將軍列傳》, 《漢書·李陵傳》 참조.

19) 陳鐵民 《王維集校注》, 16쪽에서 재인용.

경을 수복하기를 기대한 사상 관념의 유래를 엿볼 수 있을 것 같다.²⁰⁾ 또한 이릉을 대신해, 그래도 19년간 흉노에 억류되었다가 환국하는 소무만은 그 억울하고 기막힌 심정을 이해할 것으로 믿고 애달픈 하소연과 항변을 하고 있다. 왕유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순탄하게 원대한 꿈을 키워왔고, 아직은 인생의 기구함과 혹독한 시련을 겪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렇듯 가슴에 사무치는 이릉의 冤痛을 깊이 헤아려 “죽히 귀신도 흐느껴 울게 할(足令鬼神飲泣)”(淸 黃周星 《唐詩快》)²¹⁾ 정도이니 인생에 대한 통찰과 감개가 진정 나이답지 않다. 때문에 혹자는 이 <李陵詠>은 열아홉 살 때의 작품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왕유가 안록산의 난의 와중에 강압에 못 이겨 반군의 관직을 떠맡으며 이릉과 유사한 고통을 경험한 이후에 지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²²⁾ 하지만 왕유와 같은 감개와 통탄이 반드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우리나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개인에 따라서는 천성적인 감성과 통찰에서도 얼마든지 분출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어쩌면 당시 왕유가 경성에서 생활하며 기왕의 많은 전공에도 불구하고 한 두 차례의 패착으로 문책을 받고 가혹하게 내쳐진 장수의 처지를 목도하고 문득 비운의 명장 이릉을 떠올려 비유 풍자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갖가지 모순과 불합리가 상존하는바 위와 같은 현상을 통해 현실 사회의 본질을 직시하면서 왕유는 바야흐로 이상세계를 동경하고 설계하기에 이른다. 그가 열아홉 살 때(개원 7년) 世外 桃源의 이상향을 그린 <桃源行>은 바로 그 같은 의식세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작품은 도연명의 <桃花源記>를 개작한 것으로, 원작의 기본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왕유 자신의 사회 이상을 반영해 완곡하면서도 明麗

20) 鄧安生 외, 《王維詩選譯》, 成都: 巴蜀書社, 1990.2. 9쪽.

21) 주19와 같음.

22) 劉曉林, <窮途悲歌, 沈鬱蒼涼 — 王維詠史詩的藝術意蘊>, 《王維研究》4(2003. 11), 329쪽 참조.

한 필치로 ‘別有天地非人間’(이백 <山中問答>)의 理想國을 설계하였다. 본시 도연명이 묘사한 世外的 ‘도화원’은 인간 세상의 온갖 고통에서 아득히 벗어나 편안히 살며 즐겁게 일하는 이상향의 낙원으로, “땅은 평탄하고 광활하며 집들은 가지런히 늘어서 있는 데다 비옥한 밭과 아름다운 못, 뽕나무, 대나무 같은 것들도 있어(土地平曠, 屋舍儼然, 有良田美池桑竹之屬)” 그 삶의 양상은 바깥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왕유가 새롭게 그려낸 도화원은 人煙의 흔적은 사라지고 “달 밝은 숲속 아래엔 방마다 한가로움이 흐르고 / 해 뜨는 구름 속으론 닭 울고 개 짖는 소리 시끄러운(月明松下房櫺靜, 日出雲中鷄犬喧)” ‘靈境’이자 ‘仙源’, 즉 仙境으로 변모하였다. 비록 “처음엔 난리를 피해 인간 세상을 떠나 왔건만(初因避地去人間)” “사람들이 모두 함께 무릉의 도화원에서 살며 / 세상 밖에 이상향의 전원을 열었다.(居人共住武陵源, 還從物外起田園)” 그리고 그렇게 “仙境을 이루고 나선 마침내 되돌아가지 않았다.(及至成仙遂不還)”고 하니 진정 “깊은 협곡 속에 인간의 삶이 있을 줄 그 누가 알았으랴! / 속세에서 아득히 바라보면 그저 구름 덮인 산뿐인 걸.(峽裏誰知有人事, 世中遙望空雲山)” 우연히 찾아든 ‘俗客’으로서는 놀랍고 또 놀라울 따름이다.

상술하였듯이 왕유는 초년에 이미 종남산과 낙양 땅에서 은거하며 求仙한 적이 있는데, 당시 은일 행위는 이미 그의 생활 권역에서 자리를 잡았고, 은일 사상 또한 그의 의식 관념 속에서 움트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것은 아직 성당의 시대적 기풍과 정신의 반영일 뿐 결코 벼슬길에 실의하여 진정 피세 은둔을 모색하고 추구한 것은 아니었다. 어쨌든 ‘왕유가 개원 7년에 예찬한, 그 어떤 태평성세보다도 아름다운 「桃源」은 평범한 세속생활에 대한 그와 그로 대표되는 성당 초기 지식인들의 불만과 더욱 높은 차원의 아름다운 생활경지에 대한 그들의 낭만적 동경을 반영하고 있다.’²³⁾

23) 荊立民 <始也‘桃源’, 終也‘桃源’ — 王維心靈歷程的再探和前後分期說的質疑>, 《東岳論叢》1994: 4, 93쪽.

IV. 인생에 대한 感悟와 哀傷

아홉 살에 벌써 글을 지을 정도로 총명한 탕이였을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萬有와 소통하여 밝게 깨달을 수 있는(自然靈昭明覺)’ ‘良知’²⁴⁾ 덕이였을까? 왕유는 초년에 이미 인생에 대한 통찰이 남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청운의 뜻을 품고 열다섯 살 때 고향을 떠나 장안으로 가던 도중에 진시황릉을 찾았다가 내심에 이는 감개를 읊은 <過秦皇墓>를 보자.

옛 능은 잡초 무성한 산봉우리건만	古墓成蒼嶺
지하의 궁전은 화려한 왕궁 그대로구나	幽宮象紫臺
일월성신은 천장에 흩어져 있고	星辰七曜隔
銀河는 구천에서 흐른다	河漢九泉開
바다가 있으나 사람이 어찌 건너며	有海人寧渡
봄이 없으니 기러기가 어찌 돌아오랴?	無春雁不廻
더욱이 애절한 솔바람 소리 듣노라니	更聞松韻切
五大夫의 哀悼歌인가 하여라	疑是大夫哀

《史記·秦始皇本紀》에 따르면 진시황은 즉위 초에 이미 자신의 뒷자리를 닦기 시작하였고, 천하를 통일한 후에는 전국의 죄수 70여만 명을 동원해 三重泉을 깊이 파고 구리물을 부은 다음 外棺을 설치하였으며 궁전과 百官의 모형은 만들고 기이하고 진귀한 기물과 보물을 가득 채워 넣었다. 그리고 工匠에게 명해 자동 활 틀을 제작 장치하여 도굴꾼이 접근하면 자동으로 사살케 하였다. 또 수운으로 百川·江河·大海를 만들어 서로 유통하게 하였으며, 능의 천장과 바닥에는 각각 天文과 地理의 모형을 장식하고, 鈿宮(dugong) 기름으로 양초를 만들어 오래도록 촛불이 꺼

24) 王陽明 《大學問》··“良知者孟子所謂是非之心，人皆有之者也。是非之心，不待慮而知，不待學而能，是故謂之良知，是乃天命之性，吾心之本體，自然靈昭明覺者也。凡意念之發，吾心之良知無有不自知者。其善歟，惟吾心之良知自知之，其不善歟，亦惟吾心之良知自知之。”

지지 않도록 하였다고 한다. 본디 ‘지하의 궁전은 화려한 왕궁 그대로’였음이 확인한다. 하지만 진시황릉은 진시황 사후 6년 만에 항우에 의해 파헤쳐졌고,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잡초 무성한 산봉우리’로 변하였다.

혹자는 왕유가 여기서 진시황릉의 웅장한 규모와 정교하고 기이한 내부 구조를 묘사하면서 봉건통치자의 民財 수탈과 대규모 토목 공사의 폭정을 상기하는가 하면, 전제군주의 오만과 사치, 황음과 방종이 민중에게 가져다 준 고통과 재앙을 폭로 성토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시를 통해 볼 때 소년 왕유는 시가 창작에 뛰어난 재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사에 비로소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고도 하였다.²⁵⁾ 하지만 전편의 시의를 곱씹어 보면 이는 전제군주의 폭정에 대한 풍자와 견책이라기보다는 한때 부귀와 권력의 극점에 있었으나 지금은 황천을 떠도는 진시황을 애도하는 노래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일찍이 九泉地下에 그렇듯 사치하고 화려한 왕궁을 건설한 그 엄청난 권력과 위세, 더할 나위 없는 부귀와 영화는 빛을 잃은 지 오래고 무성한 잡초 더미 속에서 한 줌의 흙이 되어버린 천하의 ‘시황제’를 생각하며 왕유는 때마침 들려오는 ‘애절한 술바람 소리’로 ‘애도’의 뜻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는 그 같은 흥망성쇠의 덧없음과 인생무상에 대한 끝없는 감개에 전율하며 인생의 본질과 眞相에 대해 깊이 感悟하고 있다.

그리고 3년 후 왕유는 장안에서 요절한 知友 祖自虛를 葬送하며 애통한 마음을 노래하였는데, <哭祖六自虛>가 바로 그 작품이다. 왕유의 追念에 따르면 조자허는 유년에 이미 부모를 여의고 시중 여위고 병약하였으나 출중한 文才와 賢德이 있었기에 “수레바퀴 窮境에 다다름을 한탄치 않고 / 언젠가는 大河를 건널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不恨依窮轍, 終期濟巨川)” 하지만 불행하게도 “수명이 짧아 高官의 冠帽 장식을 등지고 말았으니(壽促背貂蟬)” 그 애달픔을 어찌 형언하랴? 하여 왕유는 급기야 저승사자에게 강력히 항의까지 하며 친구를 대신해 원통함을 토로하였다.

25) 盧渝, 《王維傳》, 太原: 山西人民出版社, 1989.9. 18쪽 참조.

하늘이 善人에게 복을 내림은 옛 기록에 있거늘	福善聞前錄
신랄한 그대를 죽임은 하늘의 뜻을 거역한 것이로다	殲良昧上玄
하늘이 어찌하여 鸞 새의 날개를 꺾고	何辜鍛鸞翮
하늘이 어찌하여 龍淵 보검을 부러뜨린단 말인가?	底事碎龍泉

그러나 허공중에 메아리치는 향변도 부질없고 사뭇 주체할 수 없는 슬픔에 悲歎만이 이어질 뿐이요, 결국은 지우와의 영결에 가슴이 미어지고 사무치는 그리움에 목이 멘다.

졸지에 그대 잃었건만 아직도 만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乍失疑猶見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대 인연 끊어졌음을 알겠구나	沈思悟絕緣
그대 생전에는 차마 서로 이별하지 못하였거늘	生前不忍別
이제 이내 情誼를 어느 누구에게 토로하리요?	死後向誰宣
애달픈 정을 내 진정 다할 길 없으매	爲此情難盡
그대 향한 그리움만 끝없이 사무친다	彌令憶更纏

(중략)

황천객을 보내며 애통한 마음에 시종 상여를 좇으며	送客哀終進
그대 가는 길에 차마 발길 돌리지 못하고 거듭 나아간다	征途泥復前
그대에게 부치는 말은 마디마디 애끓는 挽歌요	贈言爲挽曲
祭奠의 자리는 진정 마지막 이별의 자리로다	奠席是離筵

(중략)

나는 내가 먼저 그대 무덤가에 칼을 걸어두길 바라지 않았고	不期先掛劍
늘 그대보다 뒤늦게 말에 채찍질을 하게 될까 두려워하였다	長恐後施鞭
진심으로 도와줄 사람 이제 내겐 아무도 없고	爲善吾無矣
거문고 소리 알아들을 그대 이제 다신 만날 수가 없구나	知音子絕焉
거문고 소리 설령 사라지지 않는다 해도	琴聲縱不沒
나는 끝내 그 슬픈 가락의 絃을 끊으리라	終亦斷悲絃

왕유는 졸지에 벼슬 잃은 애통함에 발길을 돌리지 못하고 하염없이 상여를 쫓아가며 마디마디 애끓는 ‘만가’를 부르건만 ‘지음’의 벼슬 다시 만날 수 없는 애달픈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그 슬픈 가락의 현을 끊

으리라' 다짐한다. 작품은 5언 64구의 장편 排律로, 이러한 長詩는 이백, 두보, 高適 같은 많은 당대 시인들의 초년 시작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왕유의 이 같은, 요절한 지우에 대한 끝없는 哀傷은 “글자마다 폐부에서 우러나오고 구절마다 심금을 울리는 것이 역대 輓詞 가운데서도 흔치 않다.(字字出於肺腑, 句句扣人心弦, 在輓辭之中, 不可多得)”²⁶⁾는 평가가 있거나 열여덟 살 소년의 哀詞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것은 분명 그 인생에 대한 근원적 통찰과 감오에 뛰어난 감성과 文藝的 才華가 더해져 이룩된 결정체임에 틀림이 없다.

왕유는 중·만년의 현실적 시련과 고통 속에서 초년과는 달리 소극적인 자세로 身官心隱의 고뇌어린 삶을 살며 심신의 閑適함을 추구하였고, 산수 전원의 미려한 풍광과 초탈적 정취에 기대어 스스로의 영혼을 보양하였다. 물론 그 같은 왕유의 처세 태도나 창작 경향은 초년의 어린 나이에 이미 인생에 대한 한껏 조숙한 감오와 애상이 이어진 테다 모순과 불합리한 현실의 본질을 직시하면서 이상 세계를 동경한 일련의 근원적 사유와 심리적 갈등에서 그 시원적 동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V. 고결한 품성과 旨趣에의 志向

왕유는 어려서부터 영민한 테다 詩情이 풍부하고 才華가 넘쳤으며 그 심성은 또 碧玉처럼 맑고 깨끗하였는데,²⁷⁾ 그가 열아홉 살 때 경조부시에 해두 급제할 당시의 試帖詩였던 <賦得清如玉壺冰>은 바로 그러한 품성이 반영된 작품이다.

맑은 얼음을 옥병 속에 넣어 두면
얼음물이 마치 달빛 아래 方諸 이슬 같은데

藏冰玉壺裏
冰水類方諸

26) 劉維崇, 《王維評傳》, 臺北: 正中書局, 1975.2. 臺二版, 9쪽.

27) 《集異記·王維》 참조.

얼음과 달빛이 다 붉은 햇볕에 사라지기 전에	未共銷丹日
맑디맑은 빛은 또 아름다운 무늬 창을 비춘다	還同照綺疏
투명함 한껏 띠어 속을 조금도 감추지 않고	抱明中不隱
정결함 한껏 머금어 밖이 훤히 뚫린 듯하나니	含淨外疑虛
氣品은 정원에 쌓인 이슬인 양하고	氣似庭霜積
광채는 섬돌에 부서지는 달빛을 연상시키나니	光言砌月餘
새벽이면 까치 문양 아로새긴 거울을 능가하고	曉凌飛鵲鏡
밤이면 그윽한 반딧불 아래 책을 비추거니	宵映聚螢書
이를 만약 당신께 견주어본다면	若向夫君比
그 맑은 마음도 외려 미치지 못할 것이외다	清心尙不如

당시 경조부시의 詩題로 지정된 ‘清如玉壺冰’은 劉宋 鮑照의 <代白頭吟> 가운데 “끈기는 붉은 거문고 줄 같고 / 맑기는 옥병 속 얼음 같다(直如朱絲繩, 清如玉壺冰)”의 後句이다. 포조의 原詩는 여인이 변심한 지아비를 원망하며 자신의 마음은 변함없이 청순함을 항변하는 뜻을 표현하였으며, 왕유의 이 시첩시 역시 원시의 시의를 계승하였다. 다만 두 작품은 흔히 夫婦뿐만 아니라 君臣이나 朋友 간의 情誼가 실로 無常하여 오래도록 지속되기 어렵다는 뜻을 표현한 것으로 확대 해석되기도 한다. 어쨌든 왕유는 작품에서 여인의 입을 빌려 ‘옥병 속 얼음’의 맑고 깨끗함을 극력 묘사한 후 지아비의 마음은 그 청결함에 비추어 분명 손색이 있다는 말로 마무리하면서 순결한 애정을 구가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는 소년 왕유의 고결한 품성과 지취에 대한 지향을 나타내며 또한 나아가 그가 훗날 冰清玉潔, 즉 얼음같이 맑고 옥같이 깨끗한 심성으로 名利를 멀리하고 오직 그 淸淨하고 순결한 인품을 지키며 脫俗의 詩品을 창조한 원천을 보여준다.

VI. 自然美의 중시와 추구

성당 시단의 3대가 이백, 두보, 왕유는 창조적 실험 정신으로 각기 새로운 시세계를 개척함으로써 唐詩의 극성을 이끌었다. 이백이 호방한 필치

로 낭만적 상상에 주력하고, 두보가 침울한 필치로 현실의 반영에 치중하였다면 왕유는 閒靜한 필치로 산수 자연의 묘사에 두각을 나타내었다. 특히 자연 묘사에 있어서는 이백, 두보도 왕유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후세의 일반적인 평가다. 왕유의 자연 편향의 심미관은 그 초년에 이미 두드러졌다. 현존 왕유 시 중 가장 이른 시기인 열다섯 살 때의 작품으로 알려진 <題友人雲母障子>²⁸⁾를 보자.

그대의 집 운모 병풍을	君家雲母障
바깥뜰에 가져다 펼쳐 놓으니	持向野庭開
절로 산골짜 샘물이 흘러드는 듯하나니	自有山泉入
진정 채색으로 그려낼 수 있음이 아니로다	非因彩畫來

雲母障子, 즉 운모 병풍은 운모(돌비늘)의 자연 무늬를 그림같이 장식해 만든 병풍으로 천연의 산수 정취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왕유는 친구 집의 운모 병풍에 題詩하면서 ‘절로 산골짜 샘물이 흘러드는 듯함’ 자연미의 극치에 찬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 예술적 형상은 진정 사람이 채색으로 그려낼 수 있는 경지를 넘어서고 있으니 가히 ‘天作’이라 할 만하다는 뉘앙스다. 당시 그는 시작은 물론 이미 회화에도 능하였으며, 또한 상당한 심미적 감각과 능력을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훗날 왕유 스스로 “나는 본디 자연의 分數에 화합코자 한다.(吾固和天倪)”(<座上走筆贈薛濤慕容損>)고 하며 천성적으로 자연의 分限과 구분에 편안히 융합으로써 만사만물과 화합하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듯이 그의 심미적 자질은 다분히 천부적이면서 또한 자연미를 중시하고 추구하는 도가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왕유 초년의 처세사상은 중·만년과는 달리 유가가 보다 우위에 있었으나 어느 정도 도가적인 경향을 띠기도 하였다. 전술한 대로 열여덟 살 이전에 이미 “낙양 땅에서 郭泰와 李膺처럼 신선인 양하였고” 열아홉 살 때

28) 題下 原注··“時年十五.”

는 <桃源行>으로 ‘人間仙境’을 그려낸 것은 분명 도가사상의 영향이라 할 것이다. 도가는 자연을 중시하고 자연미를 숭상한다. 이른바 ‘자연’이란 먼저 인간과 대립되는 자연계와 자연 현상으로서의 자연, 즉 대자연을 가리키며, 또 彫飾이나 彫琢과 상반되는 질박, 순수, 清新함을 두고 이르는 일종의 예술 풍격을 말한다. 이러한 두 가지 의미로서의 ‘자연’은 모두 자연시(산수·전원시)의 창작과 밀접히 연관된다. 실제로 왕유는 훗날 대자연 속 산수 전원의 아름다움을 묘사함과 동시에 그 순박하고 청신한, 아름다움의 극치를 추구하는 데 몰두하여 일가를 이루었다. 왕유 시의 전형적인 풍격 유형²⁹⁾에 ‘자연미’가 있으며, 그것은 곧 그의 자연 편향적 심미관에서 연원한 것이다. 후세 사람들이 왕유 시를 평해 “마치 가을날 물 위의 연꽃이 바람 따라 유유히 미소를 띠는 것과 같다.(如秋水芙蓉, 倚風自笑)”(《隴翁詩評》)³⁰⁾거나 “장중하고 閑雅하며 혼연히 자연스러운 맛을 풍긴다.(莊重閑雅, 渾然天成)”(明 呂夔 《王右丞詩集·序》)³¹⁾고 하였으며, 또 왕유의 그림을 평하기를,

그 필치와 구상이 흡사 대자연의 조화에 참여한 듯하여 착상이나 구도 상 설령 약간의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산수가 아득히 펼쳐진 풍경이나 구름 자욱한 산봉우리 그리고 山石의 색채 등은 전혀 인위의 흔적을 찾을 길 없는 천지조화의 신묘한 정취를 풍기니, 결코 보통 화가들이 미칠 바가 아니다.(《書畫》筆蹤措思, 參於造化, 而創意經圖, 即有所缺, 如山水平遠, 雲峯石色, 絕迹天機, 非繪者之所及也)(《舊唐書·王維傳》)

라고 하였으니, 왕유가 문예 창작상 적극 제창하고 애써 추구한 것은 화려하고 조탁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청신하고 자연스러우며 소박하고 평담

29) 왕유 시의 전형적 풍격으로는 대개 ‘冲淡’, ‘自然’, ‘含蓄’, ‘雄渾’을 꼽을 수 있다.(줄지 《당시의 거장 왕유의 시세계》, 울산: 울산대학교출판부, 2006.4. 407-461쪽 참조)

30) 宋 魏慶之 《詩人玉屑》 권2.

31) 楊文生, 앞의 책, 795쪽에서 재인용.

한 아름다움이었다.

VII. 맺음말

왕유 초년의 시작 12수는 그의 현존 詩歌 총수 376수³²⁾에 비취볼 때 결코 많은 양이 아니다. 하지만 그 12수의 시작을 통해 고찰한 왕유 초년의 의식세계는 이후 그 인생의 지향과 애환의 원류를 엿보기에 충분하다.

閒靜하고 隱逸한 抒情의 시가 성취상 독보적인 경지에 이른 왕유의 일생은 자못 무난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입신 현달에 입지한 그의 젊은 날의 雄志는 불합리한 사회 현실 속에서 거듭 좌절을 맛보아야 하였고 내심엔 시중 시름과 고뇌가 가시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어려서부터 인생에 대한 통찰과 감오가 남달랐던 탓일까 ‘역관역은’의 고뇌에 찬 삶 속에서도 의연히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이틀테면 ‘深厚한 情感 생활’·‘自適한 은거 생활’·‘독실한 종교 생활’·‘情懷 어린 문예 생활’로 심리적 위안과 정신적 해탈을 추구하여³³⁾ 고상한 인품과 淸閑한 시품을 도야함으로써 마침내 ‘一代의 高人’으로 우뚝하기에 이르렀다.

< 參考文獻 >

- 陳鐵民, 《王維集校注》, 北京: 中華書局, 1997. 8.
 楊文生, 《王維詩集箋注》, 成都: 四川人民出版社, 2003. 9.
 줄 역, 《왕유詩全集》, 서울: 현암사, 2008. 1.
 鄧安生 외, 《王維詩選譯》, 成都: 巴蜀書社, 1990. 2.
 劉維崇, 《王維評傳》, 臺北: 正中書局, 1975. 2.

32) 陳鐵民 《王維集校注》 및 拙譯 《왕유詩全集》(서울: 현암사, 2008.1.) 참조.

33) 拙稿 <試述王維的心理安慰和精神解脫>, 《齊魯學刊》 2007: 1, 65-69쪽 참조.

- 盧 渝,《王維傳》,太原:山西人民出版社,1989. 9.
- 張清華,《詩佛王摩詰傳》,鄭州:河南人民出版社,1991. 11.
- 唐 薛用弱,《集異記》(羅宗陽《歷代筆記小說選》,南昌:江西人民,1984.)
- 졸 지,《당시의 거장 왕유의 시세계》,울산:울산대학출판부,2006. 4.
- 陳鐵民,《王維新論》,北京:北京師範學院出版社,1990. 9.
- _____,《王維論稿》,北京:人民文學出版社,2006. 12.
- 王維研究會,《王維研究》1,北京:中國工人出版社,1992. 9.
- _____,《王維研究》2,西安:三秦出版社,1996. 8.
- _____,《王維研究》3,西安:陝西人民教育出版社,2001. 10.
- _____,《王維研究》4,沈陽:遼海出版社,2003. 11.
- 荊立民,〈始也‘桃源’,終也‘桃源’——王維心靈歷程的再探和前後分期說的質疑〉,《東岳論叢》1994: 4
- 金銀雅,〈王維의 初期 ‘行’詩 考〉,《중국인문과학》15, 1996.
- 黎 亮,〈王維隱逸的心路歷程〉,《昭通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25: 3, 2003. 6.
- 王輝斌,〈關於王維的隱居問題〉,《周口師範學院學報》20: 6, 2003. 11.
- _____,〈王維詩歌編年考訂〉,《運城學院學報》26: 1, 2008. 2.
- 徐雪梅,〈試論王維的道家思想〉,《語文學刊》2006: 3.
- 졸 고,〈試述王維的心理安慰和精神解脫〉,《齊魯學刊》2007: 1.
- 劉曙初,〈論王維詩歌中的女性意象〉,《福州大學學報》2007: 3.

< 中文提要 >

王維曾有言云:“濟人然後拂衣去,肯作徒爾一男兒。”(《不遇詠》) 可見其心中本有遠大的政治抱負。但他所處的現實并不如意,以致政治遭遇上多有磨難和挫折,不得不走上“亦官亦隱”之路。不過,王維的早年(在此指其二十一歲擢進士第以前)虽有“慈父見背”的不幸,却是他在一生中以最為積極、進取的态度培養青雲志的時期,意氣風發的日子。

由于史传上难以找到有关王维初年的记载，我们对少年王维的为人和事迹加以深入探讨而理解之时，难免处处碰壁，但“九岁知属辞”(《旧唐书·王维传》)的王维现存诗歌376首中，所幸他早年之作也有12首，虽然不算多，但得以弥补史传记载的不足。本文即通过其12首诗作探讨王维初年的意识世界，以期理解其人生观、处世观的源头和萌芽，并察见与其以后人生态度的相关性。

第一、立志于立身显达。王维少年即热衷功名，十五岁离家漫游京都，以谋立身显达。《过秦皇墓》诗题下源注云：“时年十五。”秦皇墓在骊山，此诗即离乡赴长安途径骊山时所作。王维从小就能诗会画，又懂音乐，早就大有名气，因而在游历两京时，颇受王公贵族等上层社会的欢迎。如从《从岐王过杨氏别业应教》、《从岐王夜讌卫家山池应教》、《敕借岐王九成宫避暑应教》叁诗则可推知当时王维数从岐王游宴。王维有《赋得清如玉壶冰》一诗，其题下源注云：“京兆府试，时年十九。”可见他于时年赴京兆府试。王维自己后来也在天宝年间所作《赠从弟司库员外綵》诗中，回想其早年的处世时云：“少年识事浅，强学干名利。”这正是其早年的确立志显达的旁证。

第二、讽刺矛盾现实与向往理想社会。王维凭着他的盖世才华，少年就出入京城上层社会，以求功名利禄，势必直接目睹权贵及政治社会的实相，对现实社会的矛盾和不合理则敢于讽刺谴责。如《洛阳女儿行》可能是其十八岁取材于洛阳而作的诗篇，不仅以讽刺和同情的笔调着力描写权贵豪奢放逸和其宠姬骄奢而空虚的生活。结尾笔锋一转，为“颜如玉”的“越女”，即西施浣纱江头而无人怜悯鸣不平，寄托对文士怀才不遇的愤慨之情。又如二十岁作于长安的《息夫人》借春秋时悲惨命运的息侯夫人以无言抗拒之事极力谴责宁王李宪的荒淫无耻。再如十九岁作于长安的《李陵咏》即以悲叹和同情的笔调表达汉代名将李陵的不幸遭遇和痛苦心情，这无非是反映当时不合理的政治现实。王维从这样现实社会的矛盾腐败中看透人间社会的实质，很自然地开始向往和设计理想社会。那十九岁时的《桃源行》就是描绘世外桃源的理想家园，如实流露出正如那样的意识世界。

第三、对人生的感悟和哀伤。王维似是早熟，对人生之理早年已有过人洞

察。试看《过秦皇墓》，是他作于开元叁年离家赴京，路过长安郊外骊山脚下的秦始皇古墓之时，时年才十五岁。一代英雄秦始皇大兴厚葬，穷奢极侈，而现“古墓成苍岭”，唯有古松在风中发出几声哀怨。王维就对兴亡盛衰和人生无常感慨不已，从中感悟到人生的本质意义。叁年后，知友祖自虚不幸英年早逝，王维哀痛至深，则以五言六十四句的长篇排律《哭祖六自虚》一诗寄托悲叹哀伤之情。诗中情谊实在非凡，“字字出于肺腑，句句扣人心弦，在慢词之中，不可多得”（刘维崇《王维评传》），简直令人不敢相信其果真是十八岁少年的哀辞。

第四、对高尚品德和清雅旨趣的憧憬。王维从小不仅聪明伶俐，而且心性也清如碧玉，他在赴京兆府试时的试帖，即《赋得清如玉壶冰》可说是其品性的写照。诗中就借物咏志，极言玉壶冰清澈明净，以表现其初年冰清玉洁的志趣和情操，由此也可见他后来坚守清静人品、创造脱俗诗品的思想源泉。

第五、对自然美的重视和追求。王维在盛唐诗坛多偏重自然描写，而且成为大家。王维早年也受到道家贵自然思想的影响。这儿所谓“自然”有两层意义：天地万象的大自然和不雕饰的艺术风格。王维偏向自然美的审美观，现在可看之于他十五岁时所作《题友人云母障子》一诗中。云母障子是依照云母石的自然纹理而制成的屏风，具有天然的山水野趣。王维诗中则以“自有山泉入，非因彩画来”的话，极口赞赏其浑然天成的自然美。后人评王维诗云：“如秋水芙，倚风自笑。”（《诗人玉屑》引《臞翁诗评》）又云：“庄重闲雅，浑然天成。”（吕夔《王右丞诗集·序》）王维清新自然的诗风就已始于他早年的审美观。

王维一生虽始终有现实隐忧和苦恼，但他本着旷达情怀和灵活思考，转而追求内在的生命价值，一定程度上得到了心灵安慰和精神解脱，遂以“一代高人”耸立于后世。

주제어 : 王维 初年 诗作 意识世界 人生指向